

# 융합적 모의면접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요구도,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정혜영, 심선숙\*, 이상복  
경동대학교 간호학부

## Effect of the Convergent Mock Interview Program on the Program Dem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b Preparation Stress

Hye-Young Joung, Sun-Sook Sim\*, Sang-Bok Lee

<sup>1</sup>Dep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융합적 모의면접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프로그램요구도,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대학교 예비 4학년 간호학과 학생 73명이며,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요구도( $t=7.92$ ,  $p<.001$ )와 진로태도성숙도( $t= 3.35$ ,  $p=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취업스트레스( $t= .98$ ,  $p= .327$ )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회기를 증가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 주제어 : 모의면접, 취업, 진로태도, 스트레스,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onvergent mock interview program on college students who are preparing for employment and their effects on program dem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job preparation stress. The study subjects were 73 nursing students and pre - 4th grade college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done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progra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3.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ogram demand ( $t = 7.92$ ,  $p <.001$ )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 $t = 3.35$ ,  $p = .001$ ).but Job stress ( $t = .98$ ,  $p = .327$ ) was not found to have any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to increase the program period and to develop and apply a customized convergence program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 Key Words : Mock interview, Job, Career Attitude, Stress, Convergence

### 1. 서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만남을 하게 되고, 단시간에 상대방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상을 남기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면접이라는 방법을 통해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하고 융화할 수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면접시험을

\*Corresponding Author : 심선숙(ssshim1003@kduniv.ac.kr)

Received June 2, 2017

Accepted September 20, 2017

Revised August 7, 2017

Published September 28, 2017

활용하고 있으며, 면접은 채용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1]. 간호대학을 졸업하는 간호대학생들 또한 병원이나 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진로 결정에 따라 인생 전반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2]. 간호대학생들의 진로프로그램은 진로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3,4,5]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간호대학에서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면접 경험의 기회를 갖게 하고 있다. 모의면접이란 취업을 위한 채용과정에서 시행되는 취업면접에 대비해 모의 상황에서 취업면접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6].

본 연구에서의 모의면접 프로그램은 이미지 메이킹,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3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교육 후에 모의면접이 진행되었다. 면접심사위원은 간호학과 교수1인과 현·전직 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간호사 1인으로 1팀에 2인의 면접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3명의 학생이 한조가 되어 모의면접을 응시하도록 하였다. 모의면접을 통해 면접에 적합한 의사소통 기술, 복장, 태도, 다양한 정보 등을 학습하고 도움을 얻음으로써 모의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태도, 취업률,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취업 준비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6]. 그러나 간호관련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 스트레스[3], 진로발달[7] 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대부분이며 실질적으로 임상현장 지도자들과 교수들이 팀으로 융합하여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도나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진로태도란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준비해 나가는 태도를 말하며[8], 진로태도 성숙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준비도 라고 할 수 있다[6]. Kim[6]의 연구에서 모의면접 후 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어 나타났으며, 그 중 목적성과 독립성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Kim[4]의 연구에서도 실전 면접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스트레스란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대학생 할 중의 위기, 긴장감,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며[9],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 기업들의 높은 요구도 등으로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신건강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Kim & Kang[10]의 연구에서 진로성숙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단계인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전 모의면접 프로그램 실시 후 진로성숙도는 높아지고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졌으며[4] 자신감이 상승[11]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취업스트레스는 일자리 부족보다는 희망하는 병원에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교과 외 활동들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학 교수와 현재 임상현장 지도자들이 융합적인 팀을 이루어 거의 실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모의면접에 대해 경험해보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실시한 모의면접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과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진로태도와 취업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기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모의면접프로그램 적용 후 모의면접 요구도,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유사실험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W시 K대학의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학과 예비 4학년으로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산출은 G\*power 3.1.6 program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0, 효과크기 0.30으로 했을때 43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가 충분한 73명이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프로그램 진행 전에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 된 후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 2.2.1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에 대한 설명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신상에 대한 모든 기록은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으며 어떠한 피해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 2.2.2 실험처치

모의면접 프로그램은 강의와(이미지메이킹,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모의면접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질문에는 바로 피드백을 주고, 수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의면접 심사위원은 2인으로 간호학과 교수1인과 현·전직 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간호사로 구성된 융합적 프로그램이다. 모의면접 대상자는 3인이 한 팀으로 면접시간은 팀당 약 30~40분 소요되었으며 모의면접 후 바로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면접에 대한 질문에 현직 간호사가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해줌으로써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2.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4문항, 프로그램 요구도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요구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3.1 진로태도 성숙도

진로태도 성숙도는 Lee[12]가 개발한 도구를 Kim[6]이 사용한 도구로, 결정성, 확신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분류된 총 47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0.82$  이었다.

### 2.3.2 취업준비 스트레스

취업준비스트레스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측정법 (Conell Medical Index:CMI)을 기초로 하여 Hwang[13]이 수정·보완한 72문항을 Kang[14]이 취업 준비에 관련된 스트레스에 관한 15문항만 일부 변경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ang[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7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0.86$ 이었다.

##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진로태도 성숙도, 취업준비스트레스의 사전사후 분석은 paired t-test 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 9명(12.3%), 여학생 64명(87.7%)이었으며, 학과 선택 동기로는 35명(47.9%)이 '적성이나 흥미에 맞아서'라고 하였고, 31명(42.5%)는 '학과 인기도와 취업전망'이라고 응답하였다. 모의면접프로그램 참여경험은 64명(87.7%)이 '경험이 없다'로 나타났으며, 추후 모의면접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71명(97.3%)이 '참여 하겠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3)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9(12.3)
	Female	64(87.7)
Motivation	Aptitude	35(47.9)
	according to grades	3(4.1)
	Job prospects	31(42.5)
	Impact of parents	4(5.5)
Mock interview experience	Yes	9(12.3)
	No	64(87.7)
participate in mock interview	Yes	71(97.3)
	No	2(2.7)

### 3.2 프로그램요구도,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 스트레스 사전·사후 분석결과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5점 만점에 사전 3.61(±.61), 사후 4.35(±.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1$ ), 진로태도성숙도에 대한 검증결과 사전 3.43(±.30), 사후 3.55(±.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 반면 취업준비 스트레스는 사전 2.90(±.62), 사후 2.90(±.62)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327$ )<Table 2>.

<Table 2> program dem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job preparation stress (N=73)

Categories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Program demand	3.61 (.61)	4.35 (.54)	7.92	$p<.001$
career attitude maturity	3.43 (.30)	3.55 (.34)	3.35	.001
job preparation stress	2.83 (.45)	2.90 (.62)	.98	.327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에게 모의면접이 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도와 취업준비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성숙한 진로태도를 향상시키고 취업준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88%가 모의면접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었으며, 프로그램 참여 후 97% 이상의 학생들이 추후 모의면접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모의면접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는 프로그램 전 3.61점에서 프로그램 후 4.35점(5점 만점)으로 모의면접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7.92, p<.001$ ). 본 프로그램은 간호학과 교수와 현직 임상현장 지도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실제 면접상황과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되어 매우 현실적이고 유익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학생들에게 취업준비에 대해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이 요구되고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모의면접프로그램 적용 후 진로태도 성숙도는 프로그램 전 3.43점, 프로그램 후 3.5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 $t=3.35, p<.001$ ), Kim[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Kim[4]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즉, Kim[4]의 연구대상자는 졸업예정 학생들로 취업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진로태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생각되며, 본 연구의 대상은 4학년에 진학하는 예비 4학년 학생들로 취업준비에 대한 시간적 여유와 심리적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취업준비를 위한 모의면접 프로그램이 진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보여진다. Koo[15]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자아 존중감, 전공 선택 확신, 비판적 사고성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본인 스스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전공에 대한 확신과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의 진로상담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성공 경험을 하게하여 긍정적 강화를 통한 진로태도에 대한 성숙도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취업준비 스트레스는 프로그램 전 2.83점, 프로그램 후 2.90점으로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t=.98, p=.327$ ).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16]의 2.11점(5점 만점) 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17]의 여자 대학생 2.16점(5점 만점), 남자 대학생 2.3점(5점 만점)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타 전공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병원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일원이 된다는 부담감으로 간호대학생들도 중정도 이상의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3]의 연구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 전 3.04점(5점 만점)에서 프로그램 후 2.79점(5점 만점)으로 진로스트레스가 낮아진 것과 본 연구의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Park[3]의 연구대상자들이 졸업반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직 3학년 재학생들은 취업과는 시간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느끼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Park[18]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 부족, 부담감

등의 요인으로 수면, 위장장애 등의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불안, 분노, 우울, 무기력, 자신감 저하 등의 정신, 심리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하였으며 Kim[19]의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가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Bae & Kim[20]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무망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외적통제위치가 높을수록, A형행동유형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고 하였다. 반면 Lee[21]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점수가 높은 군집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o[22]는 사회적 자본찾기 프로그램이 진로준비행동 향상에 의미있는 영향 요인이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볼 때 교수와 학과에서는 입학 시부터 진로와 관련한 포트폴리오 관리나 진로준비행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 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높여주는 방법 모색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취업준비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융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지와 코칭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도를 높이고 취업준비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학과의 실제적인 면접프로그램등 취업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장 실무자들과 학과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전공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융합적 모의면접이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 취업준비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학과의 실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간호학과는 다른 전공 학과에 비해 취업준비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았으나 본 프로그램 참여 후 학생들의 재참여 의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설계가 대조군을 두지 않은

단일군으로 이루어지고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짧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토대로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1:1 맞춤형 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A. Lazarus, "Preparation is Key to Successful Job Interviews", *The Physician Executive*, pp. 48-50, 2004.
- [2] G. P. Ko, M. Y. Sim, "The Structural Relation of Self-efficacy, Job Stres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1, pp. 19-38, 2014.
- [3] H. M. Park, H. S. Lee,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on Career Self-efficacy,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Str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8, pp. 304-312, 2015.
- [4] Y. H. Kim,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2, pp. 817-828, 2013.
- [5] I. O. Moon, H. S. Kim, "The Effect of Career Search Programs on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3, pp. 393-402, 2012.
- [6] J. A.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imulated Job Interview Program on Career Belief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 19, No. 2, pp. 119-135, 2010.
- [7] S. J. Park,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on

- Career Development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259-267, 2012.
- [8] J. H. Jo,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e, Work Value, and Career Barrier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7
- [9] M. R. Lee, “The Relationships among Major Satisfaction, Ego-Resiliency and Job Preparing Stress”, Mokpo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4.
- [10] H. J. Kim, Y. R.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Maturity of Dance Major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ance Research, Vol. 8, No. 2, pp. 57-64, 2008.
- [11] A. D. Powell, S. H. Yip, L. S. Jeremy, J. D. Cooley, E. Lindsay, “Preparing pharmacy graduates for interviews: A collaborative statewide mock interview session to improve confidence”, Currents in Pharmacy Teaching & Learning, Vol. 7, No. 5, pp. 684-690, 2015.
- [12] G. H. Lee, “A Study on the Cultural Validity of Career Attitude Measurement Tool”,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Vol. 10, pp. 213-226, 1999.
- [13] S. W. Hwang,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Dong-A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1998.
- [14] M. Y. Kang, Moderation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 seeking activity, Spec 5activity, on the relation of job Preparing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of University Student. Chonnam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2.
- [15] H. Y. Koo, H. S. Park,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Its Predictor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6, No. 2, pp. 373-385, 2005.
- [16] B. S. Park, H. N. Cho, B. J. Park,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 -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2 pp. 1109-1117, 2015.
- [17] M. K. Cho, E. J. Choi, J. W. Lee, Y. N. Lee, J. Y. Chae,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10, No. 2, pp. 141-150, 2013.
- [18] M. J. Park, J. H. Kim, M. S. Ju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1, pp. 417-435, 2009.
- [19] S. H. Kim, S. H. Lee,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7, No. 1, pp. 63-72, 2015.
- [20] S. Y. Bae, S. H. Kim,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Self Esteem, Depression, Hopelessness, Locus of Control and Type A Behavior Pattern on Job Seeking Stress among Some College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pp. 323-333, 2016.
- [21] H. J. Lee, “Convergence differences of academic burnou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tc. by resilience clusters of students majoring in Medical record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4, pp. 67-77, 2017.
- [22] J. C. Heo, “A Convergence Study the Effect of the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on Empowerment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6, pp. 219-228, 2016

저자소개

정 혜 영(Hye-Young Joung) [정회원]



- 2011년 2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노인간호, 간호교육

심 선 숙(Sun-Sook Sim) [정회원]



- 2008년 2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5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기본간호, 기초간호

이 상 복(Sang-Bok Lee) [정회원]



- 1988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여성건강간호, 모유수유